

Power Interview

중소기업청 김동선 청장



김동선

- ▲1953년 서울 출생
- ▲1976년 고려대 무역학과
- ▲1983년 핀란드 헬싱키대 경영학 석사
- ▲2000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개발과장
- ▲2004년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장
- ▲2007년 산업자원부 산업협력과장
- ▲2008년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 ▲2010년 중소기업청장(現)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육성을 향해!”

중소기업청이 내세운 비전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근간이며, 국가의 성장 동력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1996년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일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서비스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규제개혁 및 국제협력기능 강화 등 현장밀착형 중소기업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펼쳐나가고 있다.

최근 경제계 화두는 단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당연히 동반성장의 한축을 튼실하게 견인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2009년 기준 총 3,066,484개(종사자 11,751,022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시행과 이익대변 창구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수장인 김동선 청장을 통해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입장과 녹색신성장 분야 창업촉진 방안, 해외진출지원 방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현장감 있는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현황과 역점사업 등을 들어보았다.

취임 1주년을 넘긴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 환경을 돌아보면, 대내적으로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SSM 확장으로 골목상권 위협,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청년실업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리비아 등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일본교역 중소기업의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1년 동안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분주하게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을 마련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계기를 제공하였고,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을 통해 SSM의 무분별한 진출 속도를 억제하고 있으며,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기술·지식 창업대책' 및 '글로벌 창업대책' 등 각종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소통 및 발로 뛰는 행정실현(1週 3通)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현장의견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굉장히 바쁜 한해를 보냈지만, 서민층에 따뜻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의 '11년도 주요정책을 꼽으신다면

2011년 중소기업 주요정책 골격은 크게 4대 정책과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 주력시장(미국, 중국 등), 전략적 협력시장(UAE, 이스라엘 등), 신수요 창출시장(인도 등) 등 타깃시장별로 맞춤형 진출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간 수출 컨소시엄 구성,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등 해외진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한 창업활성화 정책'으로써, '청년기업가정신재단(10.12)'을 통해 청년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미활용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청년 창업사관 학교운영(200명), 창업선도대학(15개) 운영, 1인 창조기업 육성 등으로 창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정책'인데,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 관계회사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졸업기업 명단 공개(11. 7 예정)를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협력하여 민·관 R&D 협력펀드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SSM 가맹점 관련 유통법·상생법의 현장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오는 11월경 마련,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기능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정책'입니다. 중기청 이관 국립마이스터고(부산·전북·구미)를 신산업 분야 '기능인력 양성' 및 오는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출 방지 및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입니다.

녹색·신성장 분야의 창업촉진방안은

전년도 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149개에 달하는 전국 대학·연구기관의 녹색·신성장 분야 창업인프라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도유망한 409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마케팅 등 창업 준비 활동을 우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1대 선정분야의 지원한도를 1,500만 원 상향된 5,000만 원으로 우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 같은 촉진방안 시행을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등 사업성고가 일반 기술 분야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5개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중진공) 등 녹색·신성장 분야의 창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지원을 통해 유망 예비창업자를 양성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342명을 증원하고, 지원예산도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국가적인 성장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난 5월 18일부터 양일 간 세계 IT산업의 심장이자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벤처창업이 활성화된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후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낀 바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황량한 대지에서 세계 IT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스탠포드대학 등 지역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이 정신 교육을 주도하였고, 주 정부 역시 산·학 연계 벤처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자·IT 분야 회사들을 유치 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초기창업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도 청년 등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정신을 제고하고, 창업 초기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공공판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동반성장은 대기업에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여 그 만큼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동반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적 기반 확충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선정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 중소기업계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2·3차 동반성장 네트워크('11년 포스코 등 10대 대기업 협력사, '13년까지 100대 대기업 협력사로 확대) 구축'을 지원하고, 오는 11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동반성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협력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협력업체의 수익개선 모델, 성과공유, 납품단가 반영 등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롤모델 방향제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기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까지 포스코, 삼성전기 등 17개사가 참여하여 2,000억 원 협력펀드 조성 및 운영되는 '대·중소기업 R&D 협력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6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무역 촉진단을 파견(6회, 한전, 포스코 등 참여)하는 등의 '해외시장동반진출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임치제도',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성과 및 진단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임치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임치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 SK텔레콤 등 대기업에서도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동 제도를 반영하는 등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임치제도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임치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온라인 임치제도 도입, 금고 확충 등 정책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해 드린다면, 원거리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해 온라인 임치제도 시행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기청 지원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임치의무화 등 수요증대에 대비한 금고를 2015년까지 5,000개로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3가지의 정책방향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동종 또는 이업종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인데, 이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수출을 진행하는데 따른 초기 비용 및 경험 부족 등 수출 역량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난 3월 국내 LED 제조 10개사가 SUNPACK이란 브랜드로 컨소시엄을 구성, 러시아 바쉬키르 공화국과 4년간 1조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둘째, 모바일 기반의 SNS 등 온라인 시스템과 현지 홈쇼핑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중국 알리바바, 인도 인디아마트 등)과 홈쇼핑(중국 동방CJ 등)을 통한 시장 개척이 비용 절감이나 바이어 노출 확대 등에서 유리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글로벌 B2B사이트 등록지원, 온라인 수출 전문교육, SNS를 활용한 다양한 신 마케팅기법 도입 및 지원중기청 온라인 수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본 및 기술을 지닌 해외국가와의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벤처와 해외벤처의 합작법인(조인트 벤처) 설립·지원 방식으로 생산기술이 뛰어난 우리 기업과 이스라엘, UAE 등 원천 기술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8월 한국과 이스라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연계 및 사업화를 위한 투자에 의거, M&A,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한국모태펀드-이스라엘 벤처캐피탈(VCC)간 MOU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향후 역점사업은

한·EU FTA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한·미 FTA 체결 등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은 사실상 세계 경제는 국경 없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4,664억 달러였고, 교역규모는 세계 9위인 8,916억 달러로 수출입 비중이 국내 총 GDP의 88%를 점유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내수 확대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은 우리 중소기업이 생존하는 필수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 청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를 위해 3-Track 방식을 통해 지원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둘째, 중국과 인도와 같은 광대한 시장은 직접 공략하기 보다는 온라인(중국 알리바바, 인도 인디아마트 등)과 흡소핑(중국 동방CJ 등)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마지막으로, 자본력 및 기술력을 지닌 해외국가와의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벤처와 해외벤처의 전략적 협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당부, 격려의 말씀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 주춧돌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 하면서 국가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8%, 생산의 50%를 책임지고 있으며, 제조업(5인 이상) 국내 총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44.3%를 차지하는 등 그 소중하고 중대한 가치는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사회는 요소투입형 규모의 경제사회가 아닌, 창의와 혁신이 중시되는 '창조사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끊임 없는 도전적 자세와 창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 후에는 국내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글로벌 수출기업화'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KEA